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히브리서 1~2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유혹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필멸의 몸을 입으셨다. (35~40분)**

몇몇 학생들을 미리 선정해 그들의 어렸을 때 사진과 비슷한 연령 때 찍은 부모들의 사진을 공과 시간에 가져오게 한다. 사진들을 전시해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모의 사진과 그들의 자녀의 사진을 서로 짝맞추어 보게 한다. 부모와 그 자녀의 짝을 맞추는 데 어떤 신체적인 특성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읽는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특성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볼 수 있다면, 두 분이 얼마나 유사하게 보일 것인가?

신체적인 유사점 이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른 특성들을 학생들과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10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express image)이 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권능, 또는 특성을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1장 6~12절을** 읽도록 한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 장에서 나온 다음 사항들을 칠판에 적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2장 7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세에서 하나님이었다면, 왜 그분께서는 지상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길을 택하셨는가?

이 개념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머지 자녀들을 위한 대속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꺼이 지상에 오셨음을 설명한다. (히브리서 2:9; 빌립보서 2:5~11; 모사이야서 3:5~9 참조)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보좌를 떠나, 필멸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겪으며,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치르시려는 구주의 기꺼운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불린다. (니파이전서 11:26~33)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2장 10~18절을** 눈으로 읽게 한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바람이 주님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받으시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어떤 구절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는가? 그 이유는?
- 그분께서도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더욱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학생들과 나눈다.

**저자 및 시기:** 서기 400년경 이후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기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용된 문체와 언어가 바울의 다른 서한들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한의 저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더라도 히브리서에 있는 교리들은 바울의 다른 서한에서 나타나는 교리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만들 때, 이 편지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선지자는 "바울은 히브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59쪽)라고 가르쳤다.

이 서한이 쓰여진 시기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성전의 파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성전에 대해 항상 현재 시제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 시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바울이 저자라면 그의 사망 시기인 서기 65년경 이전에 기록되었어야 한다.

**대상.** 이 서한은 대부분 구약전서에 있는 주제와 관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한의 대상은 유대인(히브리인) 기독교도들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 사도행전과 이미 다루었던 서한들에서 보았듯이 이방인 기독교도와 유대인 기독교도 사이에는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종종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에 충실하게 남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전서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모세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흥미있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모세의 율법이 기독교도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구약전서의 참된 가치인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몇 가지 가능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초기에 기독교도들이 가진 유일한 경전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전서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신약전서는 준비 과정에 있었으며, 또 신약전서가 표준경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삼백 년 후의 일이었다. 히브리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구약전서와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오래된 율법보다 우선되어야 했다.

**주제.** 바울은 하나님의 장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 분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골로새 성도에게 가르쳤다. (골로새서 1:12~18) 히브리서는 아버지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을 이 주제에 덧붙인다. 따라서 그분은 율법의 옛 성약을 성취하고 복음의 새로운 성약을 집행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한 후기 성도 교육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신약 전서에서 히브리서는 ... 구약 전서에서 레위기가 하는 역할을 한다. 레위기가 모세의 율법 체제를 공표했다면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해 준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레위기의 질서라는 토양에서 복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왔는가를 보여준다. 그의 시대에 회복된 복음의 빛에 의해 그는 레위기 체제가 어떻게 육육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안식처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 보여준다."

"사복음서를 포함해 신약전서의 어떤 책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한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것은 없다. 이 서한에서 바울은 모세 율법 체제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모세의 율법 체제의 실체를 바로 나사렛 예수 및 그의 대속 희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조셉 필딩 맥콩키,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리고 구원, 로버트 엘 밀레트 편, 경전 연구: 제6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987년], 192쪽)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히브리서 3~4장: 구주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나 다음 생에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30~35분)**

한 학생에게 자신이 이 생에서 이루길 원하는 중요한 목표를 반원들에게 이야기 해 주도록 부탁한다. 그 학생에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질문한다. 그 목표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단계를 목록으로 만들고, 또 반 전체가 그것들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목표를 이루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철판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구절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거부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3장 8~19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안식은 무엇을 가르키는가? (교성 84:24 참조)
- 어떤 죄 때문에 그들은 이 특권을 잃게 되었는가?
- 사람들이 같은 형벌을 받지 않도록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 경고했는가?
- 여러분은 12~15절에 있는 경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로운 사람들은 죽을 때 낙원이라고 불리는 안식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과 우리 또한 이 생에서 주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계획을 믿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외의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온갖 교리에 교란되지 않고,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 그것은 의심으로부터의 안식, 두려움으로부터의 안식, 위험에 대한 우려로부터의 안식, 세상의 종교적인 혼란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복음 교리, 53~54 쪽 참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생과 다음 생 동안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목표가 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는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격려했는가?

- 만일 여러분이 이 중요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4장 2~12절을** 눈으로 읽게 한다. 그들이 주님의 안식을 추구하는 일에 힘과 지침을 준다고 느껴지는 구절에 표시하도록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이 표시한 구절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권유한다.

**히브리서 4장 14~16절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실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30절, 야곱서 1장 7~8절, 앨마서 12장 34절, 교리와 성약 59편 2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 기쁨, 안식을 찾도록 격려한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히브리서 4:12~16.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주신다.(15~20분)**

공과 시작 전에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머나먼 왕국에 가게 되었다고 상상해 본다. 그곳 사람들은 매우 흥미롭고 상냥하지만, 여러분은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정오에 하던 일을 멈추고 특별한 나팔로 국가를 연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나팔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은 체포되어 왕 앞으로 끌려갔고 나팔을 연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여러분은 왕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칠판의 단어들을 보여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이 그 왕국의 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왕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베풀어주기 바랄 것인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왕은 자비를 베풀어 여러분이 나팔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었다. 칠판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자비와 은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의 정의를 읽는다.

**히브리서 4장 12~16절을** 읽는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토론한다. 다음 말씀을 복사해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준다. 수업 중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연구해보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

자비는 동정심, 상냥함, 용서의 정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은혜는 우리가 이 생에서는 축복을 얻고 내세에서는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죄를 범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다. 이 신성한 도움은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주어진다. (이더서 12:27 참조)

인류의 축복과 승영을 위해 자비와 은혜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를 펼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교성 110:5 참조)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온다.(모사이야서 3:19; 열마서 33:8~11 참조)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인 **진 알 쿡**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고 토론한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위대한 은사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신성한 도움을 얻도록 ... [해]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

“첫째 원리는 신앙입니다. ...”

“이 은혜 곧 권능을 부여하는 힘이 신앙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복음의 첫째 원리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두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속죄를 통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시련과 질병, 심지어는 성격적 결함까지도 극복하고 자신을 완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하고 의롭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20:30~31 참조) ...”

“세 번째 원리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야고보서 4:6) ...”

“네 번째 원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

“...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라.’(니파이후서 25:23)

“... 얼마나 영광스러운 원리입니까. 즉 우리의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주님으로부터의 도움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강하냐, 혹은 누구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느냐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면, 주님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그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3:17 참조) ...”

“다섯째 원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3:20; 93:28 참조)”

“은혜를 얻기 위해 완전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3년 4월, 98~100쪽;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9~81쪽)

**히브리서 5:4 (성구 익히기) 권세를 지닌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한다.(10~15분)**

학생들에게 졸업장, 증서, 또는 면허증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런 것들을 받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 이런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의과대학에 다니지 않고 의사 면허를 낸 의사에게서 여러분이 수술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은 원리가 신권 소유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해 준다. 학생들이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5장 1~4절을** 읽게 한다. 아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출애굽기 28장 1절을** 읽게 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신권이 학위증처럼 수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면허증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메시지나 편지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성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성임해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81년 10월, 46~47쪽;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48쪽)

참된 신권의 권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다고 학생들에게 확실히 말한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토론한다.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히브리서 7~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분의 신권은 레위 신권보다도 위대하다. 그분의 희생은 구약전서에 있는 모든 희생 제물보다도 위대하다.(30~35분)**

학생들에게 선지자가 어떤 신권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 칠판에 답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그 신권의 권능을 경험했던 적절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그 신권의 이름과 그 신권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따라 불리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서 **교리와 성약 107편 2~4절을** 읽게 한다.

히브리서 7~10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신권이 모세 율법의 의식들보다 우월함을 가르쳤다고 설명한다. 제공된 참조 성구를 사용해 반 전체가 다음의 질문에 관해 토론하게 한다. (또는 참조 성구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질문에 답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교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히브리서 관련 부분(388~397쪽)의 주해를 활용한다.

-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7:1~2 참조)
- 멜기세덱 또는 아브라함 가운데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히브리서 7:2~4 참조. 학생들이 만약 3절의 의미에 관해 묻는다면, 이 구절에 대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참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신권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5:5~6 참조)
-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였다면, 어떻게 해 그분께서 멜기세덱보다 위대할 수가 있었는가? (조셉 스미스 역 성경, 히브리서 7:3 참조)
- 멜기세덱 신권에 의해 집행되는 복음의 새로운 성약이 어떻게 아론 신권에 의해 집행되는 모세의 율법 또는 옛 성약보다도 우월한가? (히브리서 8:8~13 참조)
- 위대한 대제사에 의해 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구약전서에서 제사에 의해 바쳐지는 제물과 희생보다도 우월한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가? (히브리서 9:1~15; 앨마서 34:10, 13~14 참조)

**히브리서 10:9~22.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15~20분)**

학생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림을 보여준다.(부록, 293쪽 참조) 유의사항: 친지가 감옥에 있는 학생들에게 신중을 기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가?
-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왜 비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치루고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왜 행복할 수 있는가? 왜 불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림(부록, 294쪽)을 보여주고, 어떤 죄수들은 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아서 감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계속 법을 어긴다.) 학생들에게 **모사이야서 2장 41절을** 읽게 하고 이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앨마서 41:10 참조)

- 어떻게 행복이 단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방식에 의해 결정되는가?

-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죄가 있으며 또한 마치 죄수처럼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가? (로마서 3:23; 요한1서 3:4 참조)

- 이 생과 다음에 오는 생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10장 10절, 14~17절을** 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찾아보게 한다. (우리는 성결하게 될 수 있다.) 성결하게 됨이라고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한 학생에게 **조셉 비워스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하고 반 전체가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분의 기이한 대속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주님의 무한한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앨마서 34:16] (Conference Report, 1996년 10월, 98쪽;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72쪽)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대속의 권능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죄로부터 성결하게 되는 것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 주님께서 줄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것이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히브리서 11:1~12: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동과 권능의 원리이다. 이 신앙은 고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35~40분)

학생들에게 정원에 무엇인가를 심은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 씨앗이 자라날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가?

학생들에게 버스를 기다려 본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버스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본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 편지가 의도했던 대로 도착할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실제로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거나 기대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떤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매일 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칠판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적고 그 밑에 다음 참조 성구를 적는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엘마서 32장 21절, 이더서 12장 6절.** 학생들과 함께 이 세 구절을 읽고 각 성구로부터 신앙의 정의를 내려본다.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또는 매일 학교나 직장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신앙에 관한 이 정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신앙이 권능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단지 미래에 일어날 결과에 대한 강한 믿음 이상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말해 준다.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복음의 첫 번째 원리는 신앙이 아니다. \_\_\_\_\_ 를 믿는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에게 **신앙개조 제 4 조**를 읽게 하고, 칠판에 있는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저는 두 종류의 신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대단히 귀하고, 드물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전기만큼 실제적이나 그보다 천 배나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행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행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얼마만큼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께 따르면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복음에서 첫 번째 원리가 되고 있습니까?”(여러분의 신앙개조, 브리검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1962년 3월 21일], 8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어떻게 두 번째 종류의 신앙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두 번째 종류의 신앙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보기 위해 **히브리서 11장 2~40절** 전부 또는 선정한 부분을 읽는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예를 찾아서 반원들과 나누도록 권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바울이 왜 신앙에 관해 그토록 많은 예를 열거했다고 생각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읽고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찾았는지 질문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는(1절)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다음 말씀을 나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충분히 커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통해 버릴 수 있는 죄의 짐을 우리가 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현명한 권고를 주었습니다.(히브리서 12:1) 나쁜 행위의 짐으로 우리의 등이 이미 휘어져 버렸을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제자의 증언 [1976년], 75쪽)

다음의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우리가 인생의 난관들을 처리하는 데 인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신앙, 인내, 참을성에 관한 주님의 모범이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에 관한 여러분의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히브리서 12:5~11. 신앙에 의해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견딜 수가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고 완전해질 수 있다. (25~30분)**

칠판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라고 적는다. 그 구절 아래 원인이라고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 가운데 비참하고 힘든 시기를 거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여러분이 내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시기가 있었는가? (유의 사항: 그 예를 말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일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비참한 시기가 있었는가?
-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는 의문으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는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학생들과 나눈다. 학생들에게 잘 듣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적어도 두 가지는 찾아보게 한다.

“아무도 역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시련과 낙담과 슬픔과 애통함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근원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역경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정제되고 발전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어떤 근원에서 오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18쪽;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6쪽)

원인이라는 단어 아래에 내 자신의 죄와 내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라고 적는다. 칠판에 목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적고 비록 우리의 시련이 한 가지 이유 이상이라는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같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을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12장 6~11절을** 읽게 한다.(또한 교리와 성약 95:1 참조) 다음의 질문을 사용할 것을 생각해 본다.

- 주님께서 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가?
- 만일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견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닌 어떤 역경을 경험하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9절**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는 문단을 적게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이 적은 것을 반원들과 나누게 한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주고 끝맺는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도와주어야 하는가? 시련의 때에 내가 받은 축복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깊이 간직하고 있던 개인적인 바람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확신을 갖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Conference Report, 1995년 10월, 18쪽;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6~17쪽)

**히브리서 1~13장.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높으심에 대한 바울의 간증을 보여 주고 있다.(20~25분)**

히브리서 소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체하심이라는 제목의 도표(222쪽)를 복사한다. 참조 성구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빈칸들을 공백으로 남겨둔다. 각 학생들에게 도표 사본을 유인물로 나누어준다. 학생들에게 이 유인물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칠판에 다음 도표의 참조 성구를 적고, 학생들에게 각 성구에서 나타난 주제를 찾아보면서 참조 성구를 찾게 한다. (이것을 개인별로 또는 그룹으로 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제를 찾으면, 그것들을 유인물에 있는 빈칸에 적게 한다.

참조 성구	주제	추가 참고 자료
히브리서 1장 4~6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도 위대함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383~383쪽의 히브리서 1장 13~14절, 2장 6~9절에 대한 주해
히브리서 3장 1~6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모세보다도 위대함.	
히브리서 5장 5~10절; 7장 11~12절; 교리와 성약 107편 1~4절 대한 주해	그리스도의 신권은 레위 신권보다도 위대함.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385~386쪽의 히브리서 7장 11~14절에 대한 주해
히브리서 7장 1~4절; 조셉 스미스 역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함.	
히브리서 9장 1절, 10~14절; 10장 10~14절; 앨마서 34장 10절	그리스도의 희생은 구약전서의 모든 희생제물을 대체함.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391쪽의 히브리서 9장 11~15절, 23~28절에 대한 주해.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필멸의 세상의 어떤 문제 또는 장애물보다도 위대함.	

학생들의 대답을 되살펴본다. 주님을 믿고 더욱더 그분의 권능에 의지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대해 간증한다. 그분께서는 과거 시대에 그랬던 것만큼 이 세대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으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50장)를 부르거나 가사를 읽음으로써 결론을 맺는 것을 생각해 본다.